순창군, 읍·면 군정설명회 개최

7일까지 올해 비전 설명
최영일 군수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적극 수렴"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가 320개 전체 마을방문을 마치고, 11개 읍면 군정설명회 일정을 잡아 다시 한번 군민들과 만나고 있다.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가 320개 전체 마을방문을 마치고, 11개 읍면 군정설명회 일정을 잡아 다시 한번 군민들과 만나고 있다.

최 군수는 군민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이라는 올해 순창군의 사자성어를 기반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군정비전과 군정 목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실시한 관내 전체 320개 마을 순회 방문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을 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군정설명회는 순창군의 올해 비전과 성과를 설명하고 읍·면 차원의 건의사항 등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첫날 팔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군수는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한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 '5대 군정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5대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 순창형 기본공익형 직불금의 확대, 농촌유학 유치,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의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 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군민설명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며"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순창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정설명회 일정은 지난 1일 팔덕·구림을 시작으로, 2일 쌍치·복흥, 5일 인계·동계, 6일 유등·적성에 이어 7일 순창·금과·풍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훈훈한 설 명절 조성… 순창군, 종합대책회의 개최

교통소통·안전대책 강구 등 논의

순창군이 지난 1일 설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영식 부군수가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명절 연휴기간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강구 △재난·사건·사고 예방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분위기 확산 △엄정한 공직·근무기강 확립 등 7대 추진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군은 행정과 종합상황반을 중심으로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물가, 의료, 재난 대책반을 편성, 분야별 근무자와 11개 읍면 근무자 등 상황근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기관 및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을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식 부군수는 회의를 통해 "군민 안전 및 생활민원과 밀접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훈한한 설 명절을 보내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2674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보합세

임실군이 2,67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이달 23일까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법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임실군이 오는 6일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한 중증 수혈 환자 증가와 명절 전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사랑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운영에 따라 지난 1일, 봄철 산불 진화대원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서 산불 진화대원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남원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운영에 따라 지난 1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산불예방에 대한 결의와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봄철 산불 진화대원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계자는 올해는 봄철 기상 여건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 산불 5건 가운데 4건이 봄철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봄철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과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산림 면적이 46,604ha로, 소나무 침엽수림이 대부분이고 산악 지형이어서 산불에 취약하며, 최근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산불, 성묘객 실화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 덕음산 등 주요 산지에 21명의 감시원과 기동순찰대원 72명 배치 등 본격적인 진화활동, 감시와 예찰활동에 집중 예정이며,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산불감시체계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진화헬기예찰, 읍면동 지역 산불감시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산림연접지 취약계층, 고령층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며, 산불예방 홍보물을 게시, 배포 예정이다.

관내 주요 산과 등산로는 산불 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봄철 산나물·약초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 및 불법 채취 등 위법행위를 단속 처벌 예정이다.

남원시 안길재 산림녹지과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산불 신고 및 자발적 소각근절을 당부하며, "산불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올해도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남원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었던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올해로 5년 연속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월 2권 최대 4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도 월 4만원 이내에서 권당 도서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2권을 살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도서 선택권을 보장하나 다만 △출판 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 △만화책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전문서적) △비도서 △오·훼손 도서 등은 제한된다. 참여 방법 및 서점 등은 남원시공공도서관 누리집(https://www.namwon.go.kr/lib)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시립도서관(063-620-8978)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063-620-52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청렴 서한문으로 청렴 실천의지 전파

순창군은 지난 2일 청렴한 순창 실현·확산을 위해 관내 214개 기업 및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군의 청렴 다짐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추진됐다. 발송된 청렴 서한문은 군에서 업무 처리한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지원, 재·세정 및 인허가 등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법령에 위배 되는 청탁, 금품·향응에 대한 요구와 제공을 근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렴 서한문 발송은 우리 군의 확고한 청렴의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추가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오는 14일까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연수생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40세미만 청장년층 이거나 남원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농업인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사람으로,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는 가산점을 부여해 정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연수생은 영농교육 이수시간, 영농규모, 신청연령, 현지조사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연수생에게 적합한 우수한 선도농가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작목재배 실습교육과 농업정보 등을 1대1로 받을수 있도록 연수생과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며, 연수 지역 및 작목을 고려하여 선도농가를 2월 이후에 모집 예정이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담당이나(063-620-8013) 읍면 직할농민상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